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1. 2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佛, 自國內 극단주의 전파 모스크 폐쇄
 - 1.16 프랑스 경찰은 “지난해 10월 니스 대성당 테러 이후 이슬람 사원 18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이슬람 극단주의를 설파·유포한 9곳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했다”고 발표

미주

- 美 국방부, 아프간·이라크 주둔 美軍 각각 2,500명으로 감축
 - 1.15 「크리스토퍼 밀러」美 국방장관 대행은 아프간 및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각각 2,500명으로 감축하였다고 발표, 이에 대해 「모하마드 나임」 탈레반 대변인은 “좋은 진전이자 현실적인 조치”라고 환영
 - * 일부언론은 미군 감축이 현지 불안 초래 및 미국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 제기
- 美, ISIS와 공모 9·11 추모관 폭파 음모한 육군 병사 체포
 - 1.19 AP통신은 오하이오주 출신의 「콜 제임스 브리지스」(20세) 美 육군 병사가 IS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뉴욕시 9·11 추모관 공격 및 중동 주둔 미군 병사 살해 음모를 공모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
 - * 同人是 조지아주 포트스튜어트의 제3보병사단 소속으로 「콜 곤살레스」라는 이름으로 활동
- FBI, 극우단체의 대통령 취임식 침투 모의 적발
 - 1.19 현지언론은 FBI가 ‘큐어넌’ 등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워싱턴DC에 주둔 州방위군으로 위장해 대통령 취임식 행사장 침투를 모의한 사실을 파악하고, 사법기관들에게 전파했다고 보도
 - * 州방위군 25,000여명 병력대상 고강도 신원조사 전면 실시

아 · 태평양

- 외교부, 이라크·시리아·아프간 등 여행금지 6개월 연장
 - 1.19 외교부는 이라크·시리아·아프간·예멘·리비아·소말리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해 테러단체 준동 및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여행금지 조치를 7.31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발표
- 인천공항, 해외 테러범 등 의심 인물 실시간 검색시스템 도입
 - 1.14 인천공항은 해외 테러단체 조직원 등 범법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출입국시 실시간으로 검색될 수 있는 '바이오정보 고속검색시스템'을 구축하여 감식 처리속도 단축 및 정확도를 높였다고 발표
 - * 바이오 정보시스템 구축 前 7시간 소요, 구축 後 30초 이내로 단축
- 아프간, 대법원 판사 2명 표적 총격으로 피살
 - 1.17 아프간 정부는 최근 언론인·사회운동가 등 유명인을 겨냥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, 카블에서 법원 차량을 타고 사무실로 이동하던 대법원 판사(女) 2명이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

중 동

- 터키 국방장관, 대테러 협력을 위해 이라크 방문
 - 1.18 터키 국방부는 「홀루시 아카르」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이라크를 공식 방문했으며, 이라크 북부에서 활동 중인 테러단체 PKK 척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

아프리카

- 소말리아, 13년만에 미군 철수로 치안 악화 우려
 - 1.17 AP통신은 소말리아에 주둔하며 현지 특수부대 훈련 등 알샤바브 소탕 작전을 지원했던 미군(700여명)이 13년만에 완전 철군했다고 보도
 - * 同 언론은 미군 철수와 알샤바브의 공격 지속에 따른 소말리아의 치안 악화 가능성 제기

파키스탄, 대학교 총기 테러

- '16.1.20 0930경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州에 위치한 바차칸 대학교*에 '파키스탄 탈레반(TTP)'의 분파인 '기다르 그룹' 조직원 4명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, 학생과 교수 포함 21명 사망·50여명 부상
 - * 과거에도 同대학은 진보주의자가 창설했다는 이유로 테러단체가 공격 위협
- 테러범들은 기숙사와 교실·연구실 등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던 중, 출동한 軍·警과 교전 6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사살
- '기다르 그룹'은 “정부군이 최근 몇달간 TTP 대원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복수”라며 배후를 자처
 - 하지만 TTP의 대변인은 “자신들을 사칭하면 심판을 받을 것”이라며 해당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
- 한편, 파키스탄 총리는 “국가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, 테러와 극단주의를 완전히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”며 지속적이고 강경한 대테러활동을 다짐
 - * '15년 정부의 강력한 대테러정책으로 테러범 2,159명 사살, 1,724명 체포

< 파키스탄 탈레반 (TTP) >

- (결성) '07. 12 알카에다가 '파키스탄의 FATA(부족자치州) 지역 내 군사 작전에 대한 저항 및 무장투쟁 강화'를 위해 13개 소규모 무장단체들을 연합하여 결성한 극단주의 테러단체('11.7 UN 지정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지역(FATA) 및 아프간 접경지역(쿠나르州 등)
- (활동수법) 부족지역내 게릴라戰 및 페샤와르 등 주요도시 폭탄테러 등을 자행, 중앙 집권적인 아프간 탈레반과 달리 각 부족별 조직이 자율적으로 활동
- (주요테러) '07.12 라왈핀디에서 前파키스탄 총리 암살, '11.5 페샤와르 국경수비대에 자폭테러, '13.9 페샤와르에서 교회 대상 자폭테러, '14.6 카라치市 진나국제공항 동시다발 공격 등

